

「莊子」養生主에 나타난 修辭技巧의 考察**

李 弘 子*

I. 序 論

中國에서 사상, 감정의 효과적 표현을 위해 말을 갈고 닦는 修辭의 개념은 일찍부터 있었다. 「周易」에 修辭란 말이 이미 보이며,¹⁾ 「說文解字」를 통해 上古時代의 의미를 고찰해보면²⁾ 修辭는 訟辯에 사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후대에 나타난 「毛詩序」에는 이른바 “詩之六義”라는 것이 보이는데, 風·雅·頌·賦·比·興 여섯 가지가 그것이다. 이중 風·雅·頌은 詩의 성격상의 분류이고, 賦·比·興은 詩의 서술방법이라는 것이 通說이다. 여기서 賦는 直叙法을 말하고 比는 比喻法을 가리킨다해도 별 무리가 없다. 다만 興에 대하여는 漢代이후 학설이 분분하여 比喻의 일종 또는 作者의 주관적인 聯想을 읊은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³⁾ 이러한 것은 中國에 있어서 修辭學이 비록 독립된 학문분야로서 체재를 갖추지는 못했더라도 그 概念은 일찌기 성립되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莊子」가 저술된 戰國時代는 큰웅이 일어나 어지러이 다투던 난세였

* 서울大學校 人文大 講師(中文學)

** 이 글은 1981년 3월 20일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에서 발표한 論文임.

- 1) “修辭立其誠，所以居業也。(말을 닦아 그 정성을 세우는 것은 業에 있기 위함이다.)” 〈乾卦，文言傳〉
- 2) “修，飾也。从彡，攸聲。(修는 꾸밈이다. 뜻은 彡에서 나왔고 음은 攸이다.)” 〈說文九篇上 彡部〉 “辭，訟也。从讞辛，讞辛，猶理辜也。(辭는 송사다. 뜻은 讞辛에서 나왔다. 讞辛은 죄를 다스린다는 의미와 같다.)” 〈說文十四篇上，辛部〉
- 3) 金學主, 「中國文學概論」, 新雅社, 1977, p. 45.

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경영할 자기나름대로의 생각을 체계화하여 각기 유파를 이루었다. 이들 諸子百家는 그들대로의 일가견으로 濟世의 뜻을 가졌던 것이니 이런 상황은 자기 학설만이 옳고 남의 학설은 그르다고 공박, 논쟁을 위한 논쟁으로 번져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好辯術 내지 修辭術의 발달 역시 불가피했다.

莊子(B. C. 370~280년경)는 당시 각 유파간의 이론적 대립을 해소하고 철학적 한계를 극복시키기 위해 구속에서 벗어나 넓고 시원한 세계를 호흡할 수 있는 開放主義를 제창하였다. 그의 저술인 「莊子」에는 達觀的 인생관과 審美的 자연관이 나타나 있다. 즉 偏執과 妄念을 해소하기 위해 假飾을 철저히 타파, 본래 自然과 적나라한 人間을 만나게 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문제 이전으로 환원시키고 人生의 가장 안일한 삶을 되찾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를 두었다.

「莊子」는 文體 및 그 表現에 있어서도 이러한 思想과 잘 조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莊子가 당시 哲學界의 是非論爭이 모두 言語가 지닌 약점에서 발단되고, 또 言語의 횡포로 점점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체득함으로써 거의 寓言으로 엮은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寓言이란 전달하고자하는 뜻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여러가지 比喩法, 象徵法 등 간접적인 방법을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言語媒介를 넘어서 이쪽의 진의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다.⁴⁾

「莊子」가 흔히 난해한 책의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이러한 寓言의 사용과 함께 풍부한 상상력, 論理展開 및 文學技巧의 獨特함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이제 內篇 7편, 外篇 15편, 雜篇 9편 모두 33편으로 전해지는 「莊子」에서 內篇중의 “養生主” 1편을 중심으로 난해한 원인으로 지적된 여러 가지 특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오늘날 「莊子」를 이해하는데 있어 약간이나마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여 試圖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4) 金忠烈, 「中國哲學散稿」, 汎學圖書, 1977, pp. 151-158.

실제에 있어 漢字가 單音節語임으로 해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特性 즉 文章의 修飾性과 暗示性이 「莊子」에서도 基底를 이루고 있어 「莊子」만의 特性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拙稿에서는 그러한 修辭方法들이 어떻게 유효적절히 구사되었는가 하는 것이나마 분석해봄으로써 試論을 삼고자 한다.

修辭法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학자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하여 일정치가 않고 또 분류기준도 다양하다.⁵⁾ 여기서는 漢文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字數, 音韻등의 변화는 形式的 側面에서, 그외의 表現技巧은 內容的 側面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引用의 편의를 위해 “養生主” 全篇을 크게 4段으로 나누고 明 焦竑의 「莊子翼」을 底本으로 그 句讀를 참조하여 모두 128까지 번호를 붙여 보았다. 그리고 한 번 引用된 句節이 再引用되기도 하므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각 句節의 풀이는 뒤에 부록으로 달아 전체를 풀이하기로 한다.

II. “養生主” 分析

1. 形式面

形式的 修辭란 字句의 修飾을 뜻한다. 이 形式的 側面은 西洋이나 우리나라에서 다루는 外形的 技巧와는 상이하다. 각 言語가 지닌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形式的 修辭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주로 中國學者들의 學說을 참조하였다.

5) 대개 3~4種으로 분류한다.

① 文字上, 語源上, 組織上, 修辭上.

② 類似, 聯想, 對照.

③ 知力的, 情緒的, 意志的.

④ 幻想, 排列, 矛盾.

⑤ 譬喻法, 化成法, 布置法, 表出法등

이외에도 Aristoteles는 對象에 관한 陳述의 形式을 10種의 範疇로 구별하여, 實體, 分量, 性質, 關係, 場所, 時日, 狀態, 所有, 能動, 所動으로 보았다. 上述한 분류는 주로 文學的 側面에서 다른 것이고, 範疇에 의한 분류는 哲學的 側面에서 다른 것이나 修辭上 공통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形式的 修辭는 대체로 字句 數量의 多少, 聲音의 高下, 排列의 變化, 配合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⁶⁾ 여기서는 數量, 聲音, 排列, 配合順으로 보기로 한다.

(1) 數 量

數量面에서 多少를 나타내는 것은 대체로 省略, 添加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① 省略

이는 간결하면서 함축성이 있는 표현 효과를 지닌다. 즉 論旨를 강조하고 餘韻을 감돌게 하는 修辭技巧로 “養生主”에 많이 나타난다. 대체로 主語, 述語, 代名詞, 形容詞, 介詞, 聯詞 또는 句, 段이 省略되었다.

主語가 省略된 例는 다음과 같다.

30. (臣之道)進乎技矣

52. (臣之刀)所解數千牛矣

82. (右師)曰

100. (秦失)曰

이외에도 102, 103에서 같은 例를 찾아볼 수 있다.

述語를 省略한 例로는

106. 而今非(以爲其人)也

를 들 수 있다.

代名詞를 省略한 例는 다음과 같다.

7~8. (吾)爲善無近名, (吾)爲惡無近刑

40. (吾)依乎天理

形容詞를 省略한 例는 다음과 같다.

93. (澤雉之)神雖王

介詞를 省略한 例는 다음과 같다.

21. 莫不中(於)音

23. 乃中(於)經首之會

6) 鄭業建, 「修辭學提要」, 北平立達書局, 民國 22年, p.103.

이외에 27, 58, 68, 122 모두 ‘於’가 省略된 것이다.

聯詞가 省略된 例는 꽤 많은 편이다. 대체로 ‘而’ ‘則’이 省略되었으며 그 例는 다음과 같다.

28. 庖丁釋刀(而)對曰

76. (而)得養生焉

92. (而)不薪畜樊中

127. (而)火傳也

47. (則)割也

49. (則)折也

58. 恢恢乎其於遊刃(則)必有餘地矣

이외에도 省略된 例가 많으며, 81의 경우는 ‘或’이 省略되었다.

句나 段이 省略된 例는 다음과 같다.

93. (如此則)神雖王

102. (弟子問曰)然則弔焉若此可乎

59. 是以(臣用刀已過)十九年而刀刃若新發於硎

이처럼 “養生主”에 많이 사용된 省略의 技巧은 生動感있고 탄력성이 있는 분위기를 조성, 「莊子」全篇에 나타나는 함축적 의미와 일맥 상통한다 하겠다.

② 添加

添加의 例는 다음과 같다.

1~2. 吾生也有涯, 而知也無涯

‘也’가 添加된 경우로 105, 126도 들 수 있다.

29. 臣之所好者道也

‘者’가 添加된 경우로 32, 114도 들 수 있다.

31. 始臣之解牛之時

33. 三年之後

이런 경우 ‘之’는 省略해도 의미 전달에 무리가 없으나

44. 技經肯綮之未嘗

의 경우 ‘之’는 ‘未嘗’의 위치가 顛倒됨에 따라 挿入된 것이므로 앞에 든 ‘之’의 例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焉’이 添加된 例가 있다.

102. 然則弔焉若此可乎

이 경우 ‘어찌’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添加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사용된 添加의 技巧은 주로 強調의 효과를 지녀, 보다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그리고 글의 리듬을 살려 흥겹게 해준다.

(2) 聲 音

聲音의 효과는 원래 韻文에 주로 사용되는 것인데 散文인 “養生主”에서도 그 例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한자의 특성과 향문상의 특수한 여건 및 문장에 대한 개념 때문에 散文에도 外形的 修飾이나 音樂的 效果가 작용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다.⁷⁾

그 例는 疊詞, 連用助詞 및 押韻으로 분류된다.

① 疊 詞

58. 恢恢乎其於游刃必有餘地矣.

‘恢恢’는 넓다란 모양을 나타낸 狀動疊詞이다.

이외에도 같은 글자를 연이어 사용하되 앞의 疊字는 動詞로 뒤의 疊字는 형식상의 賓語가 되는 複疊이 있다. 이 技法은 특히 莊子의 독특한 표현으로 일컬어지나 “養生主”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② 連用助詞

78~79. 是何人也, 惡乎介也

83~84. 天也, 非人也

85~89. 天之生是使獨也, 人之貌有與也, 以是知其天也, 非人也

80~81. 天與, 其人與

連用된 助詞는 ‘也’와 ‘與’로 구분되며 이는 대체로 強調의 효과를 나타낸다. 「莊子」에는 특히 虛詞의 運用이 활발한데 連用助詞 역시 그

7) 金學主, 「中國文學序說」, 汎學圖書, 1976, p. 63.

일종으로 볼 수 있다.

③ 押韻

7~13. 爲善無近名, 爲惡無近刑. 緣督以爲經, 可以保身, 可以全生, 可以養親, 可以盡年

名, 刑, 經, 生은 耕部韻이고 身, 親, 年은 眞部韻이나 예전엔 통용되었던 것으로 여기선 通韻으로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用韻의 자취는 자주 눈에 띄는데 그 방법은 隔句押韻, 每句押韻, 不規則押韻등을 이용하여 一韻到底하기도 하고 換韻하기도 하여 대단히 공을 들인 것을 알 수 있다.

(3) 排 列

“養生主”에서 字句의 外形的 排列에 變化를 줌으로써 修飾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은 倒置와 排疊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① 倒 置

27. 技蓋至此乎

64~65. 視爲止, 行爲遲

68. 如土委地

27에서는 語頭助詞인 ‘蓋’가 主格으로 쓰인 ‘技’와 倒置, 64~65에서는 ‘止視’, ‘遲行’으로 動賓構造를 이루는 것이 정상이나 결과보어의 역할을 하게 된 ‘爲’를 添加함과 동시에 ‘視’ ‘行’을 앞으로 끌어내었다, 68에서는 ‘委地’하는 모양이 ‘如土’하다는 의미이므로 ‘委地如土’라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우이지만 ‘如土委地’라 하여 그 모양을 強調하였다.

37. 而不以自視

이 경우 手段으로서의 ‘以目’과 否定動詞로서의 ‘不視’가 각각 붙여져 ‘以目不視’거나 ‘不視以目’으로 쓰이는 것이 보편적 방법이다. 그러나 否定詞인 ‘不’을 앞세움으로써 해서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否定의 의미를 強調하였다.

119~122. 適來, 夫子時也, 適去, 夫子順也

119-122에서는 ‘태어날 때가 되어 태어났다가 죽을 때가 되어 죽었다’는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 ‘適來’를 ‘夫子時也’의 앞에, ‘適去’를 ‘夫子順也’의 앞에 놓음으로써 順理대로 적절히 왔다 갔음을 強調하였다.

이같은 倒置의 技巧은 결국 上下前後 次序를 顛倒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事物의 次序를 정연하게 배열하다보면 때로 지리한 감이 들기 때문에, 왕왕 그 要處의 順序를 뒤바꾸어 일면 난삽하여 注意를 환기시키는 한편, 文章에 起伏을 증가시켜 효과를 거두는 技法⁸⁾이라 하겠다.

② 排 疊

排疊의 목적은 語調를 조화시켜 語氣를 증진하고 文勢를 분방케 하여 文意를 창달하는 데 있다. 이는 대체로 論理的인 글에 많이 사용되며, 기세 당당하고 조리에 맞는 듯한 효과를 지닌다.⁹⁾ “養生主”에 나타난 排疊의 技巧은 平列, 循環, 參差 세 側面에서 볼 수 있다.

10~13. 可以保身, 可以全生, 可以養親, 可以盡年

15~18. 手之所觸, 肩之所倚, 足之所履, 膝之所踣

이 경우 10~13에서는 ‘可以’가 平列로 반복해서 쓰였고, 15~18에서는 ‘之所’가 平列로 排疊을 이루었다.

4~ 6. 殆已, 已而爲知者, 殆而已矣

54~56. 彼節者有閒, 而刀刃者無厚, 以無厚入有閒

4~6에서는 그 앞 文章을 결론지어 ‘위태로울 뿐이다’라고 하였고, 이를 맞물어 ‘그럴 뿐이면서도 앎을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이라고 하고는 다시 ‘위태로울 따름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技巧은 54~56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有閒’과 ‘無厚’로 규정짓고서 바로 앞의 ‘無厚’를 다시 사용하여 그 맥락을 이으면서 맨 앞에 사용했던 ‘有閒’으로 받았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맞물려 돌아가는 이런 技巧은

8) 傅隸樸, 「修辭學」, 正中書局, 民國67年, p. 34.

9) 鄭業建, 前揭書, p. 160.

循環排疊이라 할 수 있다.

70~71. 爲之四顧, 爲之躊躇滿志

여기서 ‘爲之’가 반복해서 排疊을 이룬것은 平列排疊과 유사하나, 그 뒤에 쓰인 字句를 보면 70에서는 2字, 71에서는 4字로 나타나 들쭉날쭉한 가운데 排疊을 이루었으므로 參差排疊이라 할 수 있겠다.

(4) 配 合

文章의 配合은 주로 對偶로 그 技巧를 나타낸다.

對偶란 字句配合과 排列에 관한 修辭라 할 수 있다. 이는 排疊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排疊은 반드시 대칭이 될 필요가 없는 반면 對偶는 한 쌍의 대칭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다르다.¹⁰⁾

“養生主”에 표현된 對偶의 技巧는 다음 例에서 찾아볼 수 있다.

1~2. 吾生也有涯, 而知也無涯

22~23. 合於桑林之舞, 乃中經首之會

114~115. 必有不蘄言而言, 不蘄哭而哭者

1~2에서는 ‘而’ 대신 ‘吾’가 插入되고, 22~23에서는 ‘乃’가 省略되고 ‘中’과 ‘經’ 사이에 ‘於’가 插入되어야 완전한 對偶를 이룬다. 114에서는 一표한 일부만이 對偶를 이루었다. 이같은 경우 넓은 意味의 對偶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7~8. 爲善無近名, 爲惡無近刑

41~42. 批大郤, 導大窾

46~49. 良庖歲更刀, 割也, 族庖月更刀, 折也.

64~65. 視爲止, 行爲遲

109~112. 有老者哭之, 如哭其子, 少者哭之, 如哭其母

119~122. 適來, 夫子時也, 適去, 夫子順也

위에 든 例에서 같은 表(·또는 *)는 서로 對偶를 이루고 있다.

對偶란 駢句라고도 한다. 여기서 ‘駢’이란 두 마리의 말이 나란히 마

10) 鄭業建, 上揭書, p.167.

차를 끌어간다는 의미인 것이다. 두 다리가 마차 하나를 같이 끌고 간다 함은 가볍고도 신속히 달리는 것이니, 두 句로 하나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더욱 명백하면서, 또 풍부한 言辭로 표현할수가 있는 것이다.¹¹⁾

“養生主”에서 발견할 수 있는 對偶의 技巧는 비교적 풍부하게 사용된 편이다. 이는 「莊子」의 內容이 일면 황당하고 궤변적인 점이 있으면서도 스케일이 큰 것과 조화를 이루어, 풍성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한 글임을 나타내준다.

2. 內容面

內容的 修辭란 心靈的 修飾으로 想像, 情緒 등을 어떻게 포출해내는가 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¹²⁾ 이는 대별하면 比喻, 強調, 變化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比 喻

比喻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더 인상적이며 흥미롭고, 理解하기 쉽게 하기 위해 다른 사물의 性格이나 形態意味 등에 빗대어 나타내는 것이다.

比喻에서 본디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를 本義라 하고, 다른 이미지를 喻義라 한다. 여기서 本義는 ‘본래적 심상’이 되고 喻義는 ‘보조적 심상’이 된다. 이처럼 비유되는 이미지와 비유하는 이미지간에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즉 각기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이미지는 서로 이질적인 속성을 지니는 동시에 類似性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¹³⁾

比喻의 방법으로 隱喻, 直喻, 諷喻, 擬人, 擬聲·擬態, 代喻를 들 수 있다.

① 隱 喻

본디 隱喻는 그리스말로 meta(over) + phora(carring) 곧 transference

11) 傳隸樸, 前掲書, pp. 62-63.

12) 鄭業建, 前掲書, p. 219.

13) 金相善, 「文章修辭學」, 一潮閣, 1972, pp. 182-184.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直喩와 함께 중요시되는 技巧 가운데 하나이다.

隱喩의 形式을 한마디로 말하면 본래적 심상(A)과 보조적 심상(B)을 동일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A is B’ 혹은 ‘A=B’ ‘A는 B이다’로 되었을 때 이러한 形式을 隱喩라고 하는 것이다.¹⁴⁾

“養生主”에는 隱喩의 例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묘사된 人物이나 生物은 모두 寓言으로써 道와 自然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A는 B’로 연결된 곳이 눈에 띄지 않는것 같다.

② 直 喩

‘A is B’가 隱喩라고 한다면 ‘A is like B’는 直喩의 形式이다. 直喩를 ‘simile’라고 하는데 라틴어 ‘similis (lire)’에서 온 말로 ‘like’라든가 ‘as’라는 말을 써서 비유하는 것을 말한다.¹⁵⁾ 즉 直喩란 직접적인 比喩라 할 수 있다.

漢文 文章에서 直喩로 쓰인 것을 찾아내기는 비교적 수월한데, 그 이유는 대개 ‘猶’ ‘若’ ‘如’ ‘似’ 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養生主”에 표현된 直喩의 例는 다음과 같다.

53. 而刀刃^{***}若新發於硯^{***}

여기서 ‘刀刃’은 본래적 심상이고 ‘新發於硯’은 보조적 심상으로 나타난다. 날카롭게 번쩍이는 잘 드는 칼을 형용함에 있어 솟들에 새로 갈은 칼날을 들어 비유한 것이다. 이같은 例는 59에서도 찾을 수 있다.

68. 如土委地^{*}

109~111. 有老者哭之, 如哭其子^{***}, 少者哭之, 如哭其母^{***}

68에서는 소를 도살할 때 順理에 따라 칼을 대면 그 고기가 마치 흙덩이 툇 떨어지듯 힘 안들이고 배어진다는 것이니 이 경우 ‘土’는 보조적 심상으로 표현되었다. 109~111에서는 老子的 죽음을 슬퍼하는 大衆

14) 金相善, 上揭書, p. 192.

15) 金相善, 上揭書, p. 208.

의 모습을 비유하였다. ‘老者哭之’와 ‘少者哭之’는 본래적 심상으로, ‘哭其子’ ‘哭其母’는 보조적 심상으로 표현되었다. 늙은이나 젊은이의 슬퍼하는 모습이 너무도 처절하여 자식의 죽음을 서러워하듯, 어디의 죽음을 서러워하듯 한다는 것이다.

“養生主”에 표현된 直喩는 위의 例에서 본 것처럼 ‘若’ 또는 ‘如’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諷 喻

諷喩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면에 나타내지 않고 그것에 빗대어 다른 말로 표현하는 方法이다. 諷喩는 주로 俗談이나 格言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때로 諷刺小說이나 諷刺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諷喩에 있어서 무엇보다 비유되는 보조적 심상이 흥미로워야 한다. 재치와 유우머가 합쳐진 흥미가 공감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莊子」는 全篇을 통해 諷刺性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養生主”에도 이러한 技巧가 사용되어 그主題를 흥미있게 전개시켜 나갔다. 그 例는 다음과 같다.

2段(14~76); 庖丁이 道에 맞게 소를 도살, 文惠君이 이를 듣고 養生의 道를 깨달음.

3段(77~94); 公文軒이 외발을 기이히 여기나 실은 부여받은대로 누리며 살수 있음.

4段(95~127); 老子的 죽음을 놓고 秦失이 世俗의 風習을 따르지 않으며 인간의 生死를 自然에 맡김.

2段에서 비천한 行爲인 도살의 장면이 고귀한 道를 끌어 넣어 통속적 편견을 깨뜨렸다. 이는 다시 본래 의도했던 養生으로 연결됨으로써 諷喩되었다. 3段에서 표현된 외발이란 속칭 다리병신이다. 남부끄러운 의형이지만 모두가 하늘의 뜻이며 부여받은 그대로를 감사히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못가의 평에서도 발견된다. 먹고 마시는 일이 너무도 힘들지만, 이 역시 부여 받은 본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 타의에 의해 용이하게 해결되는 간헐 생활이 그럴듯이 여겨지나

사실은 본성에 위배되어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다. 역시 養生의 한 극단적인 諷諭라 하겠다.

4段에서 아끼던 친구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秦失의 모습과 조상은 이들의 슬퍼하는 모습이 대조되었다. 秦失은 老子的 道를 평가함에 있어 조상객이 애도하는 것에 반비례하여 그 道의 경지에 대해 실망을 나타낸다. 모두가 역설적으로 諷刺되었으나 삶과 죽음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養生을 위해서는 육신의 1차원적인 養生을 초월하여 眞理 즉 知를 통해 養生할 수 있도록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莊子」가 흥미롭게 느껴지는 要因은 ‘養生主’의 例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諷諭의 技巧가 잘 표현된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다.

④ 擬人

擬人이란 사람이 아닌 것을 인격화하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동작을 하게 함으로 해서 인간의 감정을 옮겨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감정의 移入’이라고도 한다.

50~51. 今[○]臣[○]之[○]刀[○]十[○]九[○]年[○]矣

52. 所[○]解[○]數[○]千[○]牛[○]矣

여기서 ‘刀’는 무생물이나, 마치 생물처럼 19년의 나이를 먹었고, 사람의 힘을 주체로 소를 베는 것이면서 마치 ‘刀’가 독자적으로 베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표현되었다. “養生主”에 나타난 이러한 技巧는 生動感을 더해주는 효과를 지닌다.

⑤ 擬聲·擬態

어떤 사물이나 대상의 소리를 模寫하는 것을 擬聲法(onomatopoeia)이라 하고 모양이나 모습을 모사하는 것을 擬態法(mimesis)이라 한다. 모두가 다 소리나 모양을 비유하는 것이 특징이다.¹⁶⁾

“養生主”에도 이러한 技巧가 사용되었는데 그 例는 다음과 같다.

19~20. 砉[○]然[○]騞[○]然, 奏[○]刀[○]騞[○]然

16) 金相善, 上揭書, p. 216.

‘蹶然’ ‘嚮然’은 살과 뼈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에 대한 형용이고, ‘騞然’ 역시 칼이 지나갈 때 나는 소리에 대한 형용이니 이러한 예는 擬聲의 技巧라 할 수 있다.

58. 恢恢乎其於游刃必有餘地矣

63. 怵然爲戒

67. 諫然已解

‘恢恢’는 넓디넓어 횡한 상태를 표현, ‘怵然’은 경계하여 조심조심하는 상태를 표현하였다. ‘諫然’은 살과 뼈가 후두둑 떨어지는 모양을 표현하였으니 58, 63, 67의 예는 모두 擬態의 技巧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擬聲, 擬態의 修辭는 그사물이나 대상의 특징을 완전히 파악한 뒤에야 표현할 수 있다. 그 특징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표현하면 문장의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養生主”에 사용된 이 표현기교는 날카로운 관찰력에 의해 비로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⑥ 代 喻

代喻란 이것을 빌어 저것을 대신하는 표현법이다. 이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피차의 異同이 아니라 피차의 關係이다.¹⁷⁾ 代喻의 방법으로는 換喻와 提喻가 있다.

換喻란 어떠한 사물을 나타낼 때, 그 성질이나 또는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써서 표현하는 것으로 metonymy라고 한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으로써 구체적인 것을, 또는 구체적인 것으로써 추상적인 것을, 원인으로써 결과를 나타낸다. “養生主”에서

126~128. 指窮於爲薪, 火傳也

의 예가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指’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구실을 하며 ‘薪’은 땔나무로서 존재하는 물질이다. 물질은 자연의 변화를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현상계

17) 鄭業建, 前掲書, p. 204.

의 가시적 존재인 ‘薪’이 다 없어져버린다고 해도 그의 본질인 ‘火’는 여전히 존속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곧 나무가 다 타버리면 나무라고 가리킬 것이 없어지지만, 그 나무는 불로 전해진다는 것으로서, 일종의 자연 변화를 나타낸 例라 하겠다.

9. 緣督以爲經

이 경우 ‘督’이란 원래 목의 가운데 虛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런 구체적인 것을 들어 虛寂하게 中道를 따른다는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提喻란 Synecdoche라고 한다. 이는 본래적 심상에서 연상되는 말의 量的 관계를 말한다. 즉 어떤 하나로써 전체를 나타낸다거나, 전체의 칭호로써 어떤 한 부분이나 어느 하나를 대표하게 하는 표현이다. “養生主”에서는 다음과 같은 例를 찾아볼 수 있다.

14. 庖丁爲文惠君解牛

22. 合於桑林之舞

77. 公文軒見右師而驚曰

‘庖丁’은 백정으로 보기도 하고 이름이 ‘丁’인 백정이라고도 한다. 후자의 해석을 따른다면 ‘丁’이라는 백정은 전체의 칭호로 어느 하나를 대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桑林’은 원래 殷 湯王이 기우제를 지낸 地名인데, 전하여 湯樂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右師’란 宋代의 관직명인데 이름을 대신하여 사용되었다. 이러한 例는 전체로 어떤 하나를 대표한 것이라 하겠다.

(2) 强 調

强調란 문장의 뜻을 강하고 뚜렷하게 전달하기 위해 문장에 힘을 주는 表現技巧이다. 즉 內容을 보다 강렬하고 보다 발랄하고 절실하게 나타내는 방법인 것이다.

强調의 기법으로는 誇張, 詠嘆, 漸層·漸降, 對照, 抑揚이 있다.

① 誇 張

誇張이란 어떠한 내용이나 사물을 실제의 것보다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표현하는 技巧이다. “養生主”에서는 다음과 같은 例에서 이러한 技巧을 찾아볼 수 있다.

59. 是以十九年而刀刃若新發於硯

90~91. 澤雉十步一啄，百步一飲

96~97. 秦失弔之，三號而出

116~118. 是遁天倍情，忘其所受，古者謂之遁天之刑

59에서는 19년 동안 수천 마리의 소를 칼 하나로 잡아왔다는 것, 게다가 여전히 방금 솟돌에서 갈아낸 것 같다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지닌 백정이라 해도 좀 지나친 誇張으로 보인다. 90~91에서는 야생의 어려움을 강조하여 먹고 마실 것을 얻기가 얼마나 힘들는가 하는 것을 誇張하여 나타냈다. 96~97에서는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놓고 너무도 담담히 그리고 간략히 대하는 장면을 극단적으로 나타냈다. 115~117에서는 時俗의 통념을 깨고, 죽은 이를 조상하여 슬퍼하는 행위를 자연을 어긴 죄악이며 인정을 배반한 것이라고 역설 함으로써 強調한 誇張의 技法을 찾아볼 수 있다.

誇張의 기교는 실감나도록 하는데 뜻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때 誇張이 度を 지나면 誇張을 위한 誇張으로 떨어져버릴 우려가 있고 실감도 나지 않으며 우스꽝스러워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養生主’에서 발견된 위의 例는「莊子」全篇을 통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莊子の 誇張은 우주철학의 높은 경지에서 소요하고 있는 초연성이 보여 대담하게 誇張된 것에서 오히려 그 묘미를 발견하게 된다.

② 詠 嘆

詠嘆이란 속에서 터져나오는 격한 감정을 “아” 또는 “오”하는 식의 감탄사를 써서 표현하는 수법이다. 고조된 감정을 억누르고 억누르다가 무심결에 발하는 느낌의 소리가 문장에 적절히 쓰이면 좋은 효과를 낸다. “養生主”에도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25~26. 謔, 善哉

74. 善哉

25~26에서는 백성의 뛰어난 기술에 감탄을 금치못하였고, 74에서는 백성의 道를 터득한 도살의 경지를 듣고, 비로소 養生의 방법을 터득한 순간 감탄하는 대목을 표현하였다.

③ 反 復

反復이란 동일한 말의 반복에 의해 글의 뜻을 강하고 聲調로 興을 고조하여 심리적, 심미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80~84 天與, 其人與, 曰, 天也, 非人也

이는 “養生主”에 쓰인 例이다. 묻는 말에서 ‘天’과 ‘人’을 제시하여 그 하나만을 고르도록 하였으나 답하는 말에서 ‘天’과 ‘人’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天’임을 강조하였다.

反復은 대체로 이같이 강조의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반복만 하면 뜻이 강조되거나 리듬이 원활해지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할 때에는 오히려 균소리가 되기 쉽고 따라서 긴장감이 없어지고 산만한 글이 될 우려가 있다.

④ 漸層·漸降

漸層이란 言辭나 文章의 뜻이 그 進展에 따라 強化, 高調, 深化되어 절정에 달하게 하는 修辭技巧이다. 이러한 手法은 또한 讀者의 理解感情을 서서히 고조시켜 절정에 이르러서는 공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養生主”에서는 다음과 같은 例가 이에 속한다.

31~39. 始臣之解牛之時, 所見無非牛者, 三年之後, 未嘗見全牛也, 方今之時, 臣以神遇而不以目視, 官知止而神欲行

‘始’, ‘三年之後’, ‘方今’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흐름이 점차 現在에 가깝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백정이 소를 잡을 때 어떤 심경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맞춰 서술하였다. 처음에는 통채로 보이다가 다음 단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감각기관을

배제하고 道의 精神으로 소를 잡게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 또

90~91. 澤雉十步一啄, 百步一飲

에서도 十과 百이 漸層的으로 표현된 것이다.

漸降이란 一句一句의 내용이 점차 작아지고 얇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져 고조된 감정으로부터 점점 가라앉게 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예를 “養生主”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46~49. 良庖歲更刀, 割也. 族庖月更刀, 折也

‘歲’란 일년을 의미하고 ‘月’은 한달을 의미한다.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좁혀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漸降 역시 뚜렷한 印象을 남기는 效果가 있다.

⑤ 對 照

對照란 상반되는 이미지를 전제로 하여 비교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표현하는 수법이다. 즉 善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惡을 그 주위에 배치하고 美를 강조하기 위해 醜를 동반하는 것이다. 이같은 것은 大小, 多少, 高低, 長短, 厚薄, 廣狹, 貧富, 明暗, 動靜, 強弱, 輕重, 深淺, 清濁, 剛柔, 遠近, 疎密, 老少, 長幼, 急緩, 濃淡, 銳鈍으로 나타난다. “養生主”에는 이러한 기교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3. 吾生也有涯, 而知也無涯, 以有涯隨無涯

54~57. 彼節者有閒, 而刀刃者無厚, 以無厚入有閒

38~39. 官知止而神欲行

80~84. 天與, 其人與, 曰, 天也, 非人也

105~107. 始也吾以爲其人也, 而今非也

109~112. 有老者哭之, 如哭其子, 少者哭之, 如哭其母

처음 두 예에서는 ‘有’와 ‘無’가 대조되었고 38~39에서는 ‘止’와 ‘行’이 대조되는 동작으로 표현되었다. 80~84에서 ‘天’은 自然的인 것을, ‘人’은 人爲的인 것을 대조하여 나타냈고 ‘始’와 ‘今’도 마찬가지로 時

間의 대조를 드러냈다. 109~112에서는 ‘老’와 ‘少’ 그리고 ‘子’와 ‘母’가 상반되게 쓰임으로써 총망라하는 強調의 효과를 거두었다.

“養生主”에 이처럼 對照技巧가 많이 쓰인 것은 앞서 살펴본 誇張과 깊은 관계를 지님으로써 더욱 효과를 나타낸다.

⑥ 抑 揚

抑揚이란 완곡하게 표현하여 오히려 강한 효과를 얻거나, 반대의미를 부정함으로써 긍정의 뜻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 또는 이중부정의 형태를 말한다. “養生主”에 표현된 例는 다음과 같다.

21. 莫不中音

32. 所見無非牛者

30. 進乎技矣

44~45. 技經肯綮之未嘗，而況大軀乎

‘莫不’ ‘無非’의 경우는 이중부정으로 강조한 것이다. 30에서 ‘乎’는 비교 즉 ‘~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44~45에서는 ‘~도 한 적이 없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일면 대조의 효과와 함께 비교로 강한 抑揚을 나타내고 있다.

(3) 變 化

이는 문장이 너무 단조롭고 평범에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표현에 변화를 주어 讀者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만큼의 표현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표현방법이다. 設疑, 問答, 引用이 이에 속한다.

① 設 疑

이는 筆者가 응당 단정해도 좋을 일, 또는 세상이 다 알고있는 일을 일부러 묻는 형식으로 나타내어 독자의 판단에 호소하는 수법으로 讀者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는 동시에 反語의 효과를 거두는 수법이다. “養生主”에는 다음과 같은 例가 이런 수법으로 쓰였다.

78~81. 是何人也，惡乎介也，天與，其人與

99~102. 非夫子之友邪，曰，然，然則弔焉若此可乎

78~81에서는 비정상적인 모습마저 ‘天’ 즉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 讀者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99~102에서는 친구의 죽음을 너무도 담담히 대하는 秦失에 대해 그의 제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물음으로써 秦失의 사상을 더욱 뚜렷이 전달하였다.

② 引用

引用이란 옛사람의 명언이나 격언, 故事나 詩歌 또는 다른 사람의 논설이나 서저를 인용하여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정확하고 무게있게 하는 표현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자기의 주장이 독단이나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되고,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힘이 생기고 讀者에게 신빙성을 보여 준다.

“養生主”에는 실상 引用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1段에서 ‘生’과 ‘知’의 有·無限性を 나타낸 후 2段, 3段, 4段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故事를 열거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117. 古者謂之遁天之刑

125. 古者謂是帝之縣解

의 例는 引用에 속한다. 自然의 섭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고는 뒤이어 옛사람의 말을 引用함으로써 신빙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125 역시 자연의 섭리와 운행에 순응함으로써 오히려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 옛사람의 말을 引用하였다.

“莊子”에 자주 나타나는 引用의 技巧는 時俗의 범주를 뛰어넘으려는 莊子의 무한한 노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불가불 필요했던 방법으로 보인다. 일면 황당한 듯한 그의 이론을 讀者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빙성이 있는 故事나 명언등이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었던 것이다.

③ 問答

問答 역시 變化를 통해 효과적인 표현을 도모하는 표현기교이다. 즉

問答對話 형식을 도입하여 생동감있고 문제가 하나씩 명쾌하게 전개된다. 이 경우 일반적인 問答 또는 自問自答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養生主”에서 問答形式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莊子」의 특징적인 표현기교라고도 할 수 있다.

2段의 24~76, 3段의 77~89, 4段의 98~125가 모두 問答形式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III. 結 論

「莊子」는 立言書로서 그의 開放主義 思想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가 추구한 道란 곧 自然이며 變化 그 자체였다. 이는 다시 말하면 無形的이면서 無限하고 絶對的이면서 無爲的인 概念이라 하겠다.

이처럼 형언키 어려운 道를 전수시키기란 용이하지 않은데, 부득이 文字로 표현하자니 자연 난삽해지게 된다.

“養生主” 4段에서 老聃의 죽음을 대하는 秦失의 태도는 莊子の 生死觀을 나타내 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否定의 論理이다. 일반적인 가치판단을 일단 완전히 否定한 뒤에 다시금 하나씩 체계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육신은 對象일 뿐 主體가 아니므로 이 物이 萬物과 더불어 變化流轉하는 것은 晝와 夜가 엇갈려가며 나타나듯 자명한 이치이며, 육신의 生死는 실상 主體인 自我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 生死에 집착하여 喜怒哀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物과 我를 혼돈함으로써 유발되는 소치라는 것이다.

2段의 庖丁解牛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은 不斷한 認識을 통한 直觀의 重視라 하겠다. 庖丁이 19년 간 수천 마리의 소를 베어오는 가운데 道의 경지를 터득함으로써 實踐을 통한 直觀에의 귀의로 결론지어지고 있다.

이처럼 그 思想을 具體化시키기 위해 꾸며진 虛構는 주로 人物, 生物

自然의 묘사를 하되, 寓言, 重言, 卮言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나타낸다. 重言이란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말을 世人들이 누구나 심복하는 어떤 권위자의 말인양 꾸며 전달하는 방법이고, 卮言은 아무런 成見없이 達觀의 경지에서 自然의 소리를 흘러보내는 것이다.

“養生者”에서는 「莊子」全篇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을 그 基底로 하면서, 각기 그에 적합한 修辭技巧가 여러가지 형태로 쓰였음을 알아볼 수 있었다.

形式的 修辭에서 數量, 聲音, 排列, 配合의 運用은 文章을 생동감있고 신축성있게 하고 있으며, 특히 虛詞를 통해 文章의 調和와 聲韻의 調和를 동시에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內容的 修辭에서는 특히 思想과 文體가 혼연일체가 되어 나타난다. 直喻, 諷喻, 代喻에서 南方 楚風의 영향은 받은 낭만적 풍격과 세상을 초극한 상상력이, 풍부한 어휘 및 寓言과 한데 어울려 특유한 文體를 이룬다. 誇張과 對照에서는 時間과 空間의 제약을 뛰어넘은 대담한 사상이 대비되는 調和를 보여준다. 變化를 추구한 設疑, 引用, 問答에서 역설적이면서 폐부를 찌르는 감동을 받게 된다. 이는 종횡무진한 가운데 문제의식이 확고하고 나뉠대로의 論理가 정연하여 思想, 內容이 뚜렷이 부각되는 데서 연유하는 듯 하다.

이처럼 “養生主”한 編으로써 「莊子」33篇 전체의 修辭技巧를 유추해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겠으나, 그 筆致의 특성이 짧은 한 篇에서도 번득이는 것을 보면 앞에 고찰해본 修辭技巧의 면모로도 「莊子」를 이해하는 데 약간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養生主

〈1 段〉¹吾生也有涯/²而知也無涯/³以有涯隨無涯/⁴殆已/⁵已而爲知者/⁶殆而已矣/⁷爲善無近名/⁸爲惡無近刑/⁹緣督以爲經/¹⁰可以保身/¹¹可以全生/¹²可以養親/¹³可以盡年.

<2 段> 庖丁爲文惠君解牛/手之所觸/肩之所倚/足之所履/膝之所踣/砉然
 騞然/奏刀騞然/莫不中音/合於桑林之舞/乃中經首之會/文惠君曰/「謔/善哉
 /技蓋至此乎」/庖丁釋刀對曰/「臣之所好者道也/進乎技矣/始臣之解牛之時
 /所見無非牛者/三年之後/未嘗見全牛也/方今之時/臣以神遇/而不以目視/
 官知止/而神欲行/依乎天理/批大郤/導大窾/因其固然/技經肯綮之未嘗/而
 況大軋乎/良庖歲更刀/割也/族庖月更刀/折也/今臣之刀/十九年矣/所解數
 千牛矣/而刀刃若新發於硎/彼節者有閒/而刀刃者無厚/以無厚/入有閒/恢恢
 乎其於遊刃必有餘地矣/是以十九年而刀刃若新發於硎/雖然/每至於族/吾見
 其難爲/怵然爲戒/視爲止/行爲遲/動刀甚微/謦然已解/如土委地/提刀而立/
 爲之四顧/爲之躊躇滿志/善刀而藏之」/文惠君曰/「善哉/吾聞庖丁之言/得養
 生焉」

<3 段> 公文軒見右師而驚曰/「是何人也/惡乎介也/天與/其人與」/曰/
 「天也/非人也/天之生是使獨也/人之貌/有與也/以是知其天也/非人也」
 澤雉十步一啄/百步一飲/不斲畜乎樊中/神雖王/不善也

<4 段> 老聃死/秦失弔之/三號而出/弟子曰/「非夫子之友邪」/曰/「然」/
 「然則弔焉若此可乎」/曰/「然/始也/吾以爲其人也/而今非也/向吾入而弔焉/
 有老者哭之/如哭其子/少者哭之/如哭其母/彼其所以會之/必有不斲言而言/
 不斲哭而哭者/是遁天倍情/忘其所受/古者謂之遁天之刑/適來/夫子時也/適
 去/夫子順也/安時而處順/哀樂不能入也/古者謂是帝之縣解」/指窮於爲薪/
 火傳也/不知其盡也

양 생 주

<1 段> 1 우리의 삶에는 한이 있으나 2 삶에는 한이 없다. 3 한이 있는 삶을
 가지고 한없는 삶을 뒤쫓음은 4 위태로운 일이다. 5 그런데도 삶을 추구하
 는 자가 있다면 6 위태로울 따름이다. 7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8 名聲을 가까
 이하지 말고 9 악을 행함에 있어서는 10 형벌을 가까이하지 말 것이며, 11 中正
 을 따름으로써 12 법을 삼는다면 13 몸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고 14 어버이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기 목숨대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2 段〉 한 백정이 文惠王을 위하여 소를 잡은 일이 있었다. 그의 손이 닿는 곳이나 어깨를 기대는 곳이나 발로 밟는 곳이나 무릎으로 누르는 곳은 푸덕푸덕 살과 뼈가 떨어졌다. 칼이 지나갈 때마다 설정설정 소리가 나는데 모두가 음률에 들어맞았다. 그의 동작은 桑林의 춤과 같았으며, 그 절도는 經首의 節奏와 들어맞았다.

문혜왕이 말하였다. 「아아 훌륭하다. 재주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가?」

백정이 칼을 놓고 대답하였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道로서 재주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소를 잡았을 적에는 보이는게 모두가 소였습니다. 그러나 삼년 뒤에는 완전한 소가 보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저는 육감으로써 소를 대하지 눈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감각의 작용은 멈춰버리고 정신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천연의 條理를 따라서 큰 틈을 쪼개고 큰 구멍을 따라 칼을 찌릅니다. 소의 본래의 구조에 따라 칼을 쓰므로 힘줄이나 질긴 근육에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큰 뼈야 부딪치겠습니까?

훌륭한 백정은 일년마다 칼을 바꾸는데 살을 자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백정들은 달마다 칼을 바꾸는데 뼈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의 칼은 십 구년이 되었으며, 그 사이에 잡은 소는 수천 마리나 됩니다. 그러나 칼날은 숫돌에 새로 갈아내온 것과 같습니다.

소의 뼈마다엔 틈이 있는데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것을 틈이 있는 곳에 넣기 때문에 횡하니 칼날을 움직이는데 언제나 반드시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구년이 지나도 칼날은 새로 숫돌에 갈아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뼈와 살이 영긴 곳을 만날 때마다 저도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조심조심 경계를 하면서 눈은 그 곳을 주목하고 동작을 늦추며 칼을 매우 미세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후두둑 뼈와

살이 떨어져 ⁶⁸흙이 땅 위에 쌓이듯 쌓여집니다. ⁶⁹그러면 칼을 들고 서서 ⁷⁰사방을 둘러보며 ⁷¹만족스런 기분에 잠깁니다. ⁷²그리고는 칼을 닦아 잘 간 수해둡니다.]

⁷³문혜왕이 말하였다. 「⁷⁴훌륭한지고! ⁷⁵나는 백정의 말을 듣고서 ⁷⁶삶을 기르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3 段〉⁷⁷公文軒이 ⁷⁸右師를 보고서 놀라며 말하였다. 「이건 어떻게 된 사람인가? ⁷⁹어째서 한 말을 잘렸는가? ⁸⁰하늘이 그랬는가 ⁸¹사람이 그랬는가?」

⁸²⁻⁸³「하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니 ⁸⁴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요. ⁸⁵하늘이 낳으실 때 ⁸⁶외발이 되도록 정해주신 것이요. ⁸⁷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개의 다리가 있소. ⁸⁸그러니 내 외발도 ⁸⁹하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⁹⁰사람의 짓이 아님을 알 수 있소.

⁹¹못가에 사는 꿩은 열 발자국은 걸어야 한 번 쪼을 모이를 만나고, ⁹²백 발자국은 걸어야 한 번 다실 물을 만나요. ⁹³그러나 ⁹⁴울 속에 갇혀 길러 지기를 바라지는 않소. ⁹⁵울 속에선 ⁹⁶신경을 수고롭히지는 않지만 ⁹⁷좋아하지는 않는 것이요.」

〈4 段〉⁹⁸老聃이 죽자 ⁹⁹秦失이 조상하러 가서 ¹⁰⁰세 번 곡을 하고는 ¹⁰¹나와버렸다.

¹⁰²그의 제자가 물었다. 「¹⁰³그 분은 선생님의 친구가 아니십니까?」

¹⁰⁴진실, 「¹⁰⁵그래, 친구였지.」

¹⁰⁶제자, 「¹⁰⁷그렇다면 이렇게 조상을 하셔도 괜찮습니까?」

¹⁰⁸진실, 「¹⁰⁹그렇다. ¹¹⁰처음에는 나는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여겼었다. ¹¹¹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¹¹²조금 전에 내가 조상을 하면서 보니 ¹¹³노인들은 자기 자식을 잃은 것처럼 곡을 하고, ¹¹⁴젊은이들은 그의 어머니를 여윈 것처럼 곡을 하더군. ¹¹⁵그들이 그의 죽음에 감동된 까닭은 ¹¹⁶반드시 조상을 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을망정 조상을 하도록 만들고 ¹¹⁷곡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을망정 곡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자연

을 어기고 인정을 배반한 것이며 그의 분수를 잊은 것이다. 옛날에는 그런 것을 「자연을 어긴 죄악」이라 말하였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은 그가 태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자연의 변화를 따라 간 것이다. 자기 때에 안정되고 자연을 따라 처신하는 데에는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다. 옛날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라 불렀었다.」

손가락으로 뿔나무를 가리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그것은 불로 전해지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漢文文言修辭學, 楊樹達, 樂天出版社, 民國61年
 修辭學提要, 鄭業建, 北平立達書局, 民國22年
 古書修辭例, 張文治, 中華書局, 民國26年
 文章修辭學, 金相善, 一潮閣, 1972年
 文體論, 李仁模, 宣明文化社, 1973年
 莊子翼, 焦竑撰, 中國子學名著集成
 莊子讀本, 黃錦鑣, 三民書局, 民國 67年
 莊子, 金學主譯, 한국자유교육협회, 1974年
 莊子及其文學, 黃錦鑣, 東大圖書公司, 1977年
 中國哲學散稿, 金忠烈, 汎學圖書, 1977年